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우울 및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지예, 서예진, 박정빈, 이서정, 조은희*
군산간호대학교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uicidal ide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OVID-19

Ji Ye Lee, Ye Jin Seo, Jeong Bin Park, Seo Jeong Lee, Eunhee Jo*
Kunsan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 및 대인관계,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157명에게 2021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157명 중 응답이 미비한 7부를 제외하여 총 15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beta=.46, p<.001$), 대인관계($\beta=.31, p=.002$), 경제 상태($\beta=-.15, p=.013$), 성별($\beta=.13, p=.012$) 순서이며,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68%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 및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우울을 감소하고 대인관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뿐 아니라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icidal thought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suicidal thoughts. The researchers explain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to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four universities in Jeollabuk-do. From September 16, 2021 to January 11, 2022, data were collected from 157 students who voluntarily enrolled in the study. The final analysis included 150 subjects, after excluding 7 with insufficient respons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0.0 program. The factors influencing a subject's suicidal ideation were sequentially determined to be depression ($\beta=.46,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a=.31, p=.002$), economic status ($\beta=-.15, p=.013$), and gender ($\beta=.13, p=.012$) the explanatory power to explain suicidal ideation was 68%.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o reduce the suicidal thoughts of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a follow-up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uicidal thoughts is required. Moreover, schools need to develop suicide prevention counseling programs that help to reduce depression and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words : Students, COVID-19,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uicidal Ideation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1R1F1A1049454)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Jo(Kunsan College of Nursing)

email: almaz0920@kcn.ac.kr

Received February 22,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March 7,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3분기 COVID-19(Corona Virus Disease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48%가 COVID-19로 인한 불안,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1]. 최근 COVID-19가 대유행하는 동안 자살생각, 자살 행동, 자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54개의 연구 대상의 메타 연구에서 COVID-19 대유행 이후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 COVID-19 대유행 이후 자살 행동의 증가한 양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3]. 또한, 10대에서 20대의 사망원인 중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4], 2020년 상반기에는 20~30대 자살 시도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여 보건·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4]. 국내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COVID-19 유행 이후 우울을 보고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5]. 2020년 한 해 목숨을 잃은 20대의 54.4%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6]. 사망원인 중 '자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20대가 유일했으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7]. COVID-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8]. 취업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2020년 4월과 6월, 9월 총 3회에 걸쳐 실시한 국내 '코로나 우울 추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COVID-19 이후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및 지루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개인이 실제로 높은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렇듯 COVID-19로 인한 외출 지장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는 우울 및 부정적 정서와 같은 심리적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10].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11]에서는 COVID-19 이후 특히 20~30대가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OVID-19 이후 비대면 수업의 전환으로 인해 대학생이 대학의 강의나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대외활동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12].

대학생 시절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 후기 혹은 성인 초

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인격적 성숙이나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학업, 대인관계, 진로의 선택과 장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시기이다[13]. 선행연구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대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에 의하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대학생은 15~23%를 넘어서고 있으며[14], 42%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성인 우울 발병률을 8~18%로 추정하는 것[16]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의 우울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대학생 시기는 폭넓고 깊이 있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부모·형제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동료 관계, 선배 후배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 등 여러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소속감이나 구속력이 약해지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개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18].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과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19]에 의하면, 대인관계에서의 거부 경험이나 대인관계 기능의 결함은 자기 가치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아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준다[13]. COVID-19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보건뿐만 아니라 공공안보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발생하고 소멸하였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등의 전염병과 달리 COVID-19의 경우 여러 차례 변이를 거듭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우울 등과 같은 여러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20].

COVID-19 이전 대학생의 일상생활은 학교를 중심으로 수업과 활동, 여가에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면서 여러 집단에 자유롭게 소속되고 활발한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였다[21]. 반면에 COVID-19 이후에는 COVID-19로 인해 익숙해진 비대면 생활로 전보다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이후 대학생의 우울 및 대인관계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COVID-19가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에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가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복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1일 까지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대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vers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일반적 특성으로 포함하여 독립변수가 14개일 때 유의 수준 .05, 검정력 $(1-\beta)$.80, 중간 효과 크기 .15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 135명인 것을 근거로 15% 탈락률을 감안하여 157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설문 참여에 동의한 157명 대상자 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 7부를 제외하여 총 15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익명이 보장되며, 연구 진행 중 참여를 원치 않을 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10~15분임을 설명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우울

Radloff[22]에 의해 개발되고 Jeon, Choi와 Yang[16]에 의해 번안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0점은 “극히 드물게 1일 이하”에서부터 3점은 “거의 대부분 5~7일”로 최저 점수는 0점이며 최고 점수는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된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 개발 시 우울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며, 본 연구에서 우울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다.

2.4.2 대인관계

Van Orden 등[23]에 의해 개발되고 Jo[24]에 의해 번안된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INQ: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대인관계를 측정하였다. 총 30문항으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점은 “매우 그렇다”로 최저 점수는 30점이며 최고 점수는 2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왜곡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 개발 시 대인관계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며,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다.

2.4.3 자살생각

Reynolds[25]에 의해 개발되고 Park[26]에 의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보안하고 Choi, Kim[27]이 대학생에 맞게 일부 문항의 내용과 점수 방식을 수정·보안한 자살생각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자살생각을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최저 점수는 14점이며 최고 점수는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 개발 시 자살생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며, 본 연구에서 자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대인관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s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대인관계 및 자살생각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가 27명(18.0%), '여자'가 123명(82.0%)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22.92±3.41세였다. 학년은 '1학년'이 43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은 31명(20.7%)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있음'이 51명(34.0%), '없음'이 99명(66.0%)이었으며, 동아리는 '있음'이 77명(51.3%), '없음'이 73명(48.7%)이었다. 음주는 '있음'이 98명(65.3%), '없음'이 52명(34.7%)이었으며, 흡연은 '있음'이 11명(7.3%), '없음'이 139명(92.7%)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이 27명(18.0%), '중'이 113명(75.3%), '하'가 10명(6.7%)이었고, 주관적 건강 상태는 ' 좋음'이 38명(25.3%), '보통'이 91명(60.7%), '나쁨'이 21명(14.0%) 순이었다. 성적은 '3.0 미만'이 50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4.0 이상'이 20명(13.3%)으로 가장 적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18명(12.0%), '보통'이 101명(67.3%), '불만족'이 31명(20.7%) 순이었다. 거주 형태는 '부모님 집'이 79명(52.7%), '자취'가 35명

Table 1.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Depression		Personal relationship		Suicidal idea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Age		22.92±3.41						
Gender	Men	27 (18.0)	0.57±0.51	-3.26(.002)	2.82±1.17	-1.16(.251)	1.45±0.69	-4.29(.001)
	Women	123 (82.0)	0.95±0.64		3.12±1.31		2.13±0.95	
Religion	Yes	51 (34.0)	0.78±0.65	-1.32(.190)	2.76±1.25	-2.12(.036)	1.85±0.98	-141(.163)
	No	99 (66.0)	0.93±0.62		3.22±1.28		2.09±0.92	
Grade	1st	43 (28.7)	2.14±0.96	0.52(.670)	2.91±1.24	0.44(.728)	2.14±0.96	1.14(.335)
	2nd	38 (25.3)	2.13±0.90		3.22±1.20		2.13±0.90	
	3rd	38 (25.3)	1.80±0.86		3.03±1.22		1.80±0.86	
	4th	31 (20.7)	1.95±1.05		3.14±1.53		1.96±1.05	
Club	Yes	77 (51.3)	0.89±0.63	0.11(.913)	2.98±1.19	-0.83(.410)	0.99±0.88	-0.21(.832)
	No	73 (48.7)	0.87±0.64		3.15±1.38		1.86±1.05	
Drinking	Yes	98 (65.3)	0.90±0.54	0.40(.652)	3.04±1.09	-0.22(.823)	2.09±0.88	1.33(.185)
	No	52 (34.7)	0.85±0.79		3.10±1.61		1.86±1.05	
Smoking	Yes	11 (7.3)	1.27±0.69	2.08(.060)	3.52±1.08	1.43(.178)	2.59±1.16	1.72(.113)
	No	139 (92.7)	0.85±0.63		3.03±1.30		1.96±0.91	
Economic status	High ^a	27 (18.0)	2.70±1.02	11.44(<.001) a,b,c	3.94±1.52	8.27(<.001) a,b,c	2.70±1.02	12.50(<.001) a,b,c
	Middle ^b	113 (75.3)	1.91±0.87		2.88±1.16		1.91±0.87	
	Low ^c	10 (6.7)	1.26±0.43		2.81±1.11		1.26±0.43	
Subjective health status	Upper ^a	38 (25.3)	1.47±0.61	21.35(<.001) a,b,c	3.89±1.39	17.50(<.001) a,b,c	1.47±0.61	14.67(<.001) a,b,c
	Middle ^b	91 (60.7)	2.07±0.90		3.25±1.20		2.07±0.90	
	Poor ^c	21 (14.0)	2.73±1.08		2.17±0.91		2.73±1.08	
Academic achievement	4.0≤ ^a	20 (13.3)	1.93±0.86	5.38(.002) a,b,c,d	2.96±1.18	4.85(<.001) a,b,c,d	1.93±0.86	2.64(.052)
	3.5~3.99 ^b	31 (20.7)	1.79±0.92		2.73±1.11		1.79±0.92	
	3.0~3.49 ^c	49 (32.7)	2.26±0.91		3.16±1.31		2.26±0.91	
	<3.0 ^d	50 (33.3)	2.36±1.12		3.97±1.52		2.36±1.12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a	18 (12.0)	1.59±0.69	20.19(<.001) a,b,c	2.28±0.90	18.56(<.001) a,b,c	1.59±0.69	14.64(<.001) a,b,c
	Moderate ^b	101 (67.3)	1.97±0.90		3.07±1.16		1.97±0.90	
	Not-satisfied ^c	31 (20.7)	2.97±0.94		4.38±1.47		2.97±0.94	
Residence type	Parent's home ^a	79 (52.7)	1.91±0.90	0.50(.607)	2.95±1.26	0.42(.864)	1.91±0.90	1.41(.248)
	Self-boarding ^b	35 (23.3)	2.23±0.96		3.29±1.36		2.23±0.96	
	Dormitory ^c	36 (24.0)	2.01±1.00		3.10±1.27		2.01±1.00	

(23.3%), '기숙사'가 36명(24.0%) 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성별($t=-3.26, p=.002$), 사회경제적 수준($F=11.44,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21.35, p<.001$), 성적($F=5.38, p=.002$), 학교생활 만족도($F=20.1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우울은 사회경제적 수준($F=11.4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우울은 '상'이 '중'과 '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F=21.3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은 '나쁨'이 ' 좋음'과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F=5.38,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우울은 '4.0 이상'과 '3.5~4.0 미만'이 '3.0~3.5 미만'과 '3.0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F=20.1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우울은 '불만족'이 '만족'과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종교($F=-2.12, p=.036$), 사회경제적 수준($F=8.27,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17.50, p<.001$), 성적($F=4.85, p<.001$), 학교생활 만족도($F=18.5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는 사회경제적 수준($F=8.2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대인관계는 하가 '상'과 '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F=17.5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 좋음'이 '보통'과 '나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F=4.8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대인관계는 '4.0 이상'과 '3.5~4.0 미만'이 '3.0~3.5 미만'과 '3.0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F=18.5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대인관계는 '불만족', '보통', '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성별($t=-4.29, p=.001$), 사회경제적 수준($F=12.50,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14.67, p<.001$), 학교생활 만족도($F=14.6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자살생각은 사회경제적 수준($F=12.5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자살생각은 '상'이 '중'과 '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F=14.6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자살생각은 ' 좋음'이 '보통'과 '나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F=14.6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자살생각은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 정도

연구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의 정도에서 우울은 평균 3점 만점에 0.89 ± 0.64 점, 대인관계는 평균 7점 만점에 3.07 ± 1.29 점이었으며, 자살생각은 평균 5점 만점에 2.01 ± 0.95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Personal Relationship, Suicidal Ideation (N=150)

Variables	Mean±SD (Sum±SD)	Min	Max	Possible Range
Depression	0.89±0.64 (17.7±12.79)	0.00	2.75	0-3
Personal relationship	3.07±1.29 (92.1±38.7)	1.00	6.87	1-7
Suicidal ideation	2.01±0.95 (28.2±13.26)	1.00	4.57	1-5

3.3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의 상관관계에서 우울과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79, p<.001$)를 나타냈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74, p<.001$)가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85, p<.001$)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50)

Variables	Depression	Personal relationship	Suicidal ideation
	r(ρ)	r(ρ)	r(ρ)
Depression	1		
Personal relationship	.79(<.001)	1	
Suicidal ideation	.74(<.001)	.85(<.001)	1

3.4 대상자의 자살생각과의 영향 요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살생각에 차이를 나타낸 성별, 경제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학교생활 만족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기준 0~1 범위에 모두 속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N=150)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1.51		5.61	<.001	.74		3.26	.001
Gender(Female)	.52	.21	3.06	.003	.32	.13	2.56	.012
Economic status (Middle)	-.55	-.25	-3.18	.002	-.13	-.06	-1.04	.299
Economic status(Low)	-.93	-.25	-3.05	.003	-.55	-.15	-2.50	.013
Subjective health status (Fair)	.38	.20	2.43	.017	-.10	-.05	-.85	.394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67	.25	2.79	.006	.10	.04	.59	.556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Moderate)	.19	.09	1.12	.263	-.15	-.08	-1.26	.210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Not-satisfied)	.83	.29	3.17	.002	-.00	-.00	-.02	.986
Depression					.68	.46	4.55	<.001
Personal relationship					.23	.31	3.21	.002
R ² = .35 Adjusted R ² = .32 F(p) = 10.88(p<.001)				R ² = .68 Adjusted R ² = .66 F(p) = 33.52(p<.001)				
Dummy : Gender(male), Economic status(High), Subjective health status(goo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Satisfied)								

기준 10 이하)는 1.038~4.511로 모두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2.147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고 잔차분석 결과에서도 모형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경제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났다. 변수 중 성별(여자)($p=.003$), 경제 상태(보통)($p=.002$), 경제 상태(나쁨)($p=.003$), 주관적 건강 상태(보통)($p=.017$), 주관적 건강 상태(나쁨)($p=.006$), 학교생활 만족도(불만족)($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1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연구변수인 우울과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변수 중 우울($\beta=.46$, $p<.001$), 대인관계($\beta=.31$, $p=.002$), 경제 상태(나쁨)($\beta =-.15$ $p=.013$), 성별(여자)($\beta=.13$, $p=.01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3.52$, $p<.001$), 모형의 설명력(영향력)은 68%이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우울 및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살을 예

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우울은 평균 0.89점(3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VID-19 이전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28]의 연구에서 0.61점(3점 만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이 COVID-19 이전의 대학생에 비해 비대면 학습에 익숙해져 있어 적용된 개인적인 생활로 인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아 우울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평균 3.07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이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Eun[29]의 연구에서 2.79점(7점 만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대인관계는 대학 내에서 구성원들과 서로 교류하는 과정으로 대학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30].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이 COVID-19 이전의 대학생에 비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활동을 경험하였으므로 외부적으로 교류하는데 미숙하여 대인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평균은 2.01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와 Ahn[31]의 연구에서 1.61점(4점 만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대학생이 동아리나 친목 모임 등을 통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32].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은 동아리

활동이나 친목 모임이 결여되어 자살생각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성별, 경제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3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별에서 여성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 상황을 내면화시키도록 양육되어 있으므로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남성보다 더 많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한 Shin등[3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성별의 특성을 파악하여 성별에 따른 맞춤형 우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내는 Kang[3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기존의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COVID-19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여가생활 등 경제소득에 따른 여행 및 취미활동이 제약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로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이 높으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자살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Kang[33]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COVID-19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학습하는데 미숙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집중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교생활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Kang[3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COVID-19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대학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COVID-19 이후인 현재에도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 생활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

양한 동아리 활동 및 대외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건강 상태는 '나쁨'이 ' 좋음'과 '보통'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3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신체의 건강 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종교, 사회경제적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는 종교활동을 했을 때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Jeong과 Oh[36]의 연구 결과에서는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COVID-19 이전에는 종교활동 외에도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기회가 많아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OVID-19를 겪으며 사람들과의 접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COVID-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종교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고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Oh[3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경제 상태가 낮아짐에 따라 대학 내 사교활동과 같은 삶의 여유와 자본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 내 구성원 중 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이들을 지원해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으로 대상으로 한 Oh와 Park[3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면 주위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성향을 보여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지할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 비판

적 태도와 부정적 평가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ak과 Leel[3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으면 자신감이 높아져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성별, 경제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Jeong[39]의 연구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에서 여학생보다 자살생각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우울과 불안 모두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의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방적으로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은 경제 상태가 좋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Jeong과 Jeong[4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경제적 여파는 대학생의 자존감을 저하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COVID-19 상황을 겪으면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경제 상태를 확인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정책 마련과 건강 상태에 알맞은 치료 및 운동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Baek 등[41]의 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COVID-19를 겪으면서 증가한 비대면 활동으로 COVID-19 이전보다 신체활동 및 외부 활동이 적어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며 또한 익숙하지 않은 대학 생활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우울감이 지속되어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 자살생각의 상관관계에서 우울과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 우울과 자살생각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 대인관계와 자살생각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우울과 대인관계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는 Jeong[4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Kim[4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속감이 충족되지 못하고 소외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Van Orden 등[4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COVID-19 이후 높아진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 상담 프로그램과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후배 간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대외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체험활동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자), 경제 수준(나쁨), 우울, 대인관계로 확인되었다.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 순으로는 우울($\beta=.46$, $p<.001$), 대인관계($\beta=.31$, $p=.002$), 경제 수준(나쁨)($\beta=-.15$, $p=.013$), 성별(여성)($\beta=.13$, $p=.012$)로 나타났다. 이는 Park[4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우울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COVID-19 이후 높아진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 내 우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우울 대상자 선별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COVID-19 이후 높아진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후배 간 다양한 교류 활동과 동아리 및 대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 및 교수의 적극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를 향상하는 것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시절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 후기 혹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인격적 성숙이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학업, 대인관계, 진로의 선

택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시기이다[13]. 이 시기에 COVID-19가 가져온 일상생활의 변화와 대학 내 부적응은 대학생에게 우울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야기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COVID-19 이전보다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있어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을 감소하고 대인관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뿐 아니라 고위험 우울감 대상자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교수는 대인관계를 높일 수 있는 공감 및 좋은 대인관계 유지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표집 과정에서 전북 지역 대학생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전북 이외의 여러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파악했으므로 자살생각의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자), 경제 수준(나쁨), 우울, 대인관계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이다.

Yoon[46]의 연구에서 COVID-19 이전에 대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원인은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은 익숙해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이 높은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Choi[47]의 연구에서 COVID-19 이전에 대인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집단에서의 친구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COVID-19가 완화된 현재에도 익숙해진 개인적인 생활로 인해 외부적으로 교류하는데 미숙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나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내 우울 예방캠페인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인관계를 향상할 수 있게 폭넓은 대외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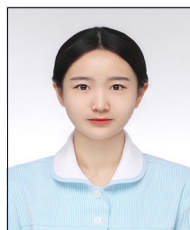
- [1] E. H. Lee, "COVID-19 generation, are their mental health good!", *Issue & Diagnosis*, Vol.1, No.414. pp.1-25, 2020.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Mental Health Considerations during COVID-19 Outbrea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health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U.S.A, pp.1-6.
- [3] J. P. Dube, M. M. Smith, S. B. Sherry, P. L. Hewitt, S. H. Stewart, "Suicide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meta-analysis of 54 studies.", *Psychiatry research*, Vol.301, 2021.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1.113998>
- [4] H. J. Mo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 4, 2023.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Trauma Stress Society, *Coronavirus Infection - 19 September 2020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Health and Medical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pp.13.
- [6] S. Y. Kim, B. J. Park, 2020 Death Cause Statistics Results, Social Statistics Bureau Population Trend Report, Statistics Korea, pp.8.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Life Respect Hope Foundation, 2021 Suicide Prevention White Paper, Health and Medical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Life Respect Hope Foundation, pp.42.
- [8] Embrain trend monitor, a survey on lifestyle changes after phased daily recovery (with Corona), Embrain trend monitor, c2021 [cited2021 Nov 4], Available From: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2212&code=0404&trendType=CKOR EA> (accessed 2022)
- [9] H. Y. Shin, COVID-19 protracted, national mental health 'Red Light', current affairs magazine, c2020[cited 2020 Oct 12], Available From: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idxno=332397>, (accessed 2022)
- [10] S. N. Williams, C. J. Armitage, T. Tampe, K. Dienes, "Public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ocial distancing

- and social iso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UK-based focus group study.”, *BMJ open*, Vol.10, No.7, 2020.
DOI: <https://doi.org/10.1136/bmjopen-2020-039334>
- [11] J. S. Lee,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COVID-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mental health management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pp.2-7.
- [12] H. H. Hwang, Y. J. Kim, D. S. Jeong, D. H. Lee, D. H. Lee, “A 4 month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Negative Affect, Depression, PTSD Symptoms, and Suicide Ide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23, No.6, pp.105-134, 2022.
DOI: <https://doi.org/10.15703/kjc.23.6.202212.105>
- [13] J. M.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trength,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3, pp.1271-1287, 2010.
DOI: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271>
- [14] Joongang daily report (2007)
- [15] S. M. Lee, the war of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employment crisis. Depression-stricken people in their 20s, the daily economy, c2010[cited 2010 Feb2], Available From: <https://v.daum.net/v/20100202150736147> (accessed Nov, 2010)
- [16] K. K. Jeon, S. C. Choi, B. 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6, No.1, pp.59-76, 2001.
- [17] K. H. Park, “Developmen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stimate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6, pp.779-788, 2008.
DOI: <https://doi.org/10.4040/ikan.2008.38.6.779>
- [18] S. M. Kwon, “Cognitive behavioral explanation model for interpersonal mal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Student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30, No.1, pp.38-63, 1995.
- [19] H. J. Kim, J. C. Han, “The Effects of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Self-Conscious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6, No.2, pp.277-294, 2004.
- [20] D. H. Lee, Y. J. Kim, H. H. Hwang, S. G. Nam, D. S. Jeong, “A Longitudinal Comparative Study of Two Periods regarding the Influences of Psycho-Social Factors on Emotional Distress among Korean Adults during the Corona virus Pandemic(COVID-19).”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7, No.4, pp.629-659, 2021.
DOI: <https://doi.org/10.20406/kjcs.2021.11.27.4.629>
- [21] S. H. Ho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nges and coping with the daily life of college student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amily and Quality of Life Society*, Vol.39, No.2, pp.47-61, 2021.
DOI: <https://doi.org/10.7466/JFBL.2021.39.2.47>
- [22]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No.3, pp.385-401, 1977.
- [23] K. A. Van Orden, “Construct validity of the *InterpersonalNeeds*”,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Libraries, 2009.
- [24] M. H. Jo, “*Korean military suicide seen through psychological models of inter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pp.19-20, 2010.
- [25] W. M. Reynolds, “*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Master’s thesi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7.
- [26] B. K. Park,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Korean Life Science Journal*, Vol.16, No.3, pp.505-522, 2007.
- [27] S. O. Choi, S. N. Kim, “The suicidal ideation and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pp.190-199, 2011.
- [28] K. H. Yoo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Journal of the Korean Nursing Education Journal*, Vol.25, No.1, pp.125-135, 201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125>
- [29] S. H. Eun, “*The effect of frustrated interpersona l needs of college students on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 tendencie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cheongnam-do, p.25, 2017.
- [30] Y. S. Lee, S. H. Park, J. K. Kim,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Association*, Vol.14, No.6,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31] J. H. Ha, S. H. Ahn,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Suicide Thinking: Verification of Structural Relational Models of Stress, Coping Method,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Journ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0, No.4, pp.1149-1171, 2008.
- [32] Y. J. Choi,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Vol.23, No.3, pp.77-104, 2012.
- [33] S. H. K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Suicide Thinking.*”, Ph.D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Ph.D. thesis in Korea, Chungcheongbuk-do, pp.53-97 2012.
- [34] M. K. Shin, H. R. Yi, J. S. Won, “The effect of life

-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Basic Nursing Society*, Vol.20, No.4, 419-428,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4.419>
- [35] I. Y. Choi,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pp.50-68, 2014.
- [36] K. S. Jeong, E. J. Oh, “Interpersonal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and Technology*, Vol.18, No.1, 475-482,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475>
- [37] Y. H. Oh, M. S. Park,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kills of nursing college freshmen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Digital Convergence Study* Vol.18, No.8, 331-341,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8.331>
- [38] H. W. Kwak, J. E. Le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Vol.17, No.2, 147-155, 2016.
- [39] M. Jeong,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217, No.5, 519-541, 2016.
DOI: <https://doi.org/10.22143/HSS21.7.5.27>
- [40] H. Y. Jeong, G. I. Jeong, “A study on suicidal ideat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3, 149-160, 2013.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3.7.3.149>
- [41] S. S. Baek, E. H. Ha, E. N. Ryo, M. S. Song, “The effect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on suicidal idea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8, No.4, 157-163, 2012.
DOI: <http://dx.doi.org/10.4094/jkachn.2012.18.4.157>
- [42] H. J. Jeong, “The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avoidance and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Gyeongsangbuk-do, pp.24-42, 2014.
- [43] E. J. Kim,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nflict and youth suicide accidents through the desire for inter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Gyeonggi-do, pp.27-35, 2013.
- [44] K. A. Van Orden, T. K. Witte, K. H. Gordon, T. W. Bender, T. E. Joiner,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6, No.1 72-83, 2008.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76.1.72>
- [45] S. R. Park,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 Suicide Think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pp.48-70, 2012.
- [46] W. S. Yoon,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13, No.1, pp.95-118, 2016.
- [47] W. K.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2, No.1, pp.1-25, 2014.

이 지 예(Ji Ye Lee)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서 예 진(Ye Jin Seo)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박 정 빈(Jeong Bin Park)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이 서 정(Seo Jeong Lee)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조 은 희(Eun hee Jo)

[정회원]



• 2017년 8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환자 간호, 간호교육